



강원도내 7개市, 15개郡, 22개군, 93개  
면의 각급학교와 수십만명의 학생을 지도  
하고 감독하는 교육의 總帥 沈載庚 강원  
도 교육감－.

그는 오늘도 대한민국 제2세 국민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하루도 寧日이  
없다. 지금까지 40여년간을 오로지 제2세 국민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몸바쳐온  
沈교육감에게 그의 온 몸에 배어있는 育英에의 열기는 차분하고 치밀하고 온  
화한 인품과 더불어 더 한층 빛을 발하는지도 모른다.

－우선 제10대 교육감으로 취임하신것을 축하드립니다. 강원도에서 앞으로 펼쳐  
나가실 교육이념이랄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런지요?－.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강원도교육의 중책을 맡게 되어 그 책임의 막  
중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교육평생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알고, 있는 힘을 다해 우리 고장  
강원도 교육의 초석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 江原道교육위원회

# 教育監 沈 載 庚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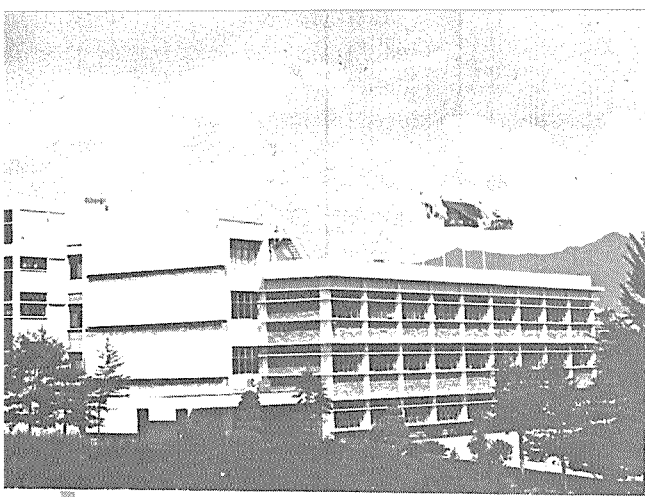
안경테 너머로 온화한 눈매와 함께 취임 소감을 이야기하는 그는 교육사업을  
천직으로 아는 사명의식이 뚜렷이 나타난다.

인구 175만명을 포용하고 있는 강원도는 문자 그대로 전설과 신비에 쌓여있는  
道勢다. 그리하여 그옛날 강원도를 가르쳐 「岩下老佛」이라 했던가.

도내 학교수로는 유치원 416개에 1만8천6백90여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민학  
교 526개교에 20만9천7백74명, 중학교 163개교에 12만86명, 고등학교 108개교에 9  
만2천8백78명, 총 44만명을 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량이 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교육이념이 있으시다면 어떤 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인재를 계속 육성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全人교육에 역점을 두면서 학력관리를 알차게 하여 수준학력을



◀ 沈교육감이  
교육에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강원도 교육위원회  
청사 전경

『지금은 치료의학 보다 예방의학에 치중해야하는 시대  
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우리나라를 걸머지고  
나아갈 제2 세 국민들의 건강이야 말로 더욱 소중히 다  
루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971년 11월 11일 강원도 교육위원회 청사에서의 강연

확보하고, 동시에 숫자로 제시되는 可視的 학력보다 사고력, 창조력 증진에 관심을 두어 교수 즉 학습방법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저 합니다.

둘째로 건강한 학교는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 의해 합리적으로 목표가 수용되고 종적, 횡적으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자율풍토 아래서 이룩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항상 싱그럽고 활기찬 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고저 합니다.

세째, 교육행정은 획일적이고 지시전달의 행정이 아니라 교육일선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며 자율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째, 교원의 복지와 사기양양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교육행정에 반영하도록 힘쓸것입니다.』

힘주어 이야기하는 沈載庚교육감의 말씀에서 강원교육의 지표가 뚜렷이 나타남을 기자는 느낄 수 있었다.

-강원도만이 가지는 학교보건의 특색사업이랄까, 자랑거리가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한말씀 해 주십시오.-

『강원도 교육시책 방향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知·德·體를 고루 갖춘 한국인 육성이 그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체력은 곧 그 나라의 부강을 뜻합

니다. 또한 지금은 치료의학보다는 예방의학에 치중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우리나라를 걸머지고 나아갈 제2세 국민들의 건강이야말로 더욱 소중히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지요. 그런 뜻에서 우리 도는 건강교육에 力點을 두라고 항상 시달하고 있지요.

요즈음도 健協 강원도지부의 협조로 심전도검사, 간염검사, 빈혈검사 등을 집단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심전도 검사의 경우, 86년도에 1만7천1백70명을 검사했고 금년도 9월 현재까지 2만1천2백70여명을 검사해서 작년에 비해 9천1백여명을 더 검사했습니다. 아마 이 숫자는 전국제일의 높은 검사율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마스크를 통한 체력장 때의 불행한 사태를 여러번 보아 왔습니다만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어 한발짝만 일찍 검사를 받아 건강의 이상조건을 발견하였었다면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본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건강제일”을 강조하시는 沈교육감의 모습에서 과연 물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 어린이가 더욱 건강해 보이는 까닭은 바로 이런 교육방침이기 때문이구나를 기자에게 실감케 해 준다.

더구나 심전도 검사의 경우 2년간의 검사결과 9백5명이라는 유소견자가 나와 수술, 기타 치료로서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다는 말씀에서 역시 예방의학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체감 느껴진다.

또한 여학생들에게는 빈혈검사도 적극 권장하고 있단다. 그리하여 실적도 2만9천여명을 검사해 튼튼한 미래의 어머니로 키우고 있다면서 은근히 자랑하기도 있지 않는다.

도장학관 韓正愚씨와 보건계장 黃重培씨는 기자에게 은근히 沈교육감의 자랑을 이렇게 귀띔해 준다.

「우리교육감님은 부하들의 애로사항이랄까 이야기를 늘 수렴하시고 고충을 같이 해주시는 인자한 분입니다. 그분의 인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차분하시고 치밀, 온화한 분이지요.」

「교육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에 발맞추어 21세기를 주도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기자는 자리를 뜨면서 들려해 주신 沈載庚교육감의 결론을 말씀에서 더욱 그의 소신있는 교육청사진을 엿보는것 같아 마음 호뭇함을 금할 수 없었다.

◎…沈교육감의 취미는 독서. 부인 金香卿여사와의 사이에 4男1女. 강원도 교위 학무국장을 거쳐 제10대 교육감 취임. 勉勵褒賞과 綠條素星勳章을 수상했다.

장남은 현재 대기업체 중역으로 활약중이며 2男은 在美수학중이다.